

# 대한양계협회소식



## 제11회 전국채란인대회 400여명 참석으로 성황리 개최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천강균)는 8월 29일 대전 유성 소재 베스트웨스턴 레전드호텔에서 양계인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전국 채란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채란인들은 △채란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가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10월 1일부터 3개월간 병아리 입식을 하지 않고 적정수수 사육을 위해 노력 △왜곡된 유통구조를 바로잡아 정성껏 생산한 계란의 제값 받기 노력 △계란의 소비회복과 실추된 입지를 바로 세우기 위해 채란계자조금사업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84페이지 참고).

## 제1차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상견례 및 협회현황 보고



본회 제1차 정책자문위원회(의장 이준동)가 지난 19일 축산회관 소회의실에서 박해상(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장), 최용규(한국노총 인천본부 고문변호사) 고문을 비롯한 회장단 및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양계협회 창립 후 처음 구성된 자문위원회인 만큼 상견례 및 협회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가 되었다. 자리에 참석한 모든 위원들은 자문위원회 발족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양계업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줄 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뜻을 밝혔다. 특히 양계의무자조금 제도, 검정소 재정비 사업, 협회 정관 등에 대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언급하고 문제해결에

노력기로 하였다. 동 위원회는 협회 내·외부에서 개선해야 할 제도는 물론 대정부 정책 등에 대해 양계산업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표1. 정책자문위원회 명단

구분	성명(직위)
고문	박해상(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장, 전 농식품부 차관), 최용규(한국노총 인천본부 고문변호사, 전 16, 17대 국회의원, 부평구청장), 홍문표(한국농촌공사 사장, 전 17대 국회의원)
위원	이광초(경인축산, 전 감사), 이연중(신영농원, 전 부회장), 함경섭(대산종계장, 전 육계자조금관리위원), 김선웅(봉림농장, 전 부회장), 오세을(석봉농장, 경기채란자부연합회장), 윤한성(하늘농장, 전 광주전남도지회장), 김영근(금세기관광농장, 전 감사), 박태원(구항농원, 충남육계지부연합회장), 장재성(금학농장, 전 부회장)

### 산란계자조금사업 계란소비촉진 TV, 라디오 홍보



2008년도 산란계자조금사업 일환으로 계란소비촉진을 위한 TV 홍보방송이 실시됐다.

1차로 지난 8월 21일 MBC '생방송 오늘아침'의 '밥상 위 보물' 코너를 통해 계란 다이어트로 체중감량에 성공한 주부, 매일 꾸준한 계란 섭취로 건강을 지키는 사람, 다양한 달걀 요리를 알

고 있는 주부 등을 소개했다. 2차로 MBC '찾아라 맛있는 TV'의 '황금밥상' 코너에서는 완전식품으로 불리는 계란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을 소개했다. 앞으로도 TV광고를 통해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라디오 홍보방송은 '오늘아침 이문세입니다', '정오의 희망곡', '지금은 라디오시대'를 통해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지속 방송된다. 금년 자조금사업 중 TV광고 1억원, 라디오광고 1억6천6백만원으로 집행되어 소비홍보에 쓰인다(라디오 광고 162페이지 참고).

### 종계DB자료분석 자문위원회 추진계획 및 개선방안 논의



지난 9월 11일 본회 회의실에서 종계DB자료분석자문위원회가 열렸다.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종계DB사업은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가진다고 평가받은 바, '08년 5월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축산관측자료로도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미 발행하고 있는 종계DB소식지 1면에 예보 기능 또는 요약설명기능을 첨부하여 비상시에 종계농가 및 계열사 실무진에서 대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 산란실용계 감축방안 협의회 쿼터제 도입 모색



산란실용계의 과잉공급이 연일 지속됨에 따라 쿼터제 도입방안 모색을 위해 19일 본회 회의실에서 산란실용계 감축방안 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자율쿼터제 해지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아 6천만수에 육박하면서 전체물량의 20%가 늘어나면서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 농가에서 어려움이 연일 지속되고 있다. 실용계 농가의 자율적인 입식자제운동과 더불어 산란계 사육수수를 감축기로 의견을 모았다.

### 육용원종계 실무자 3차 회의 자율쿼터제 12만수 합의 도출



9월 2일 본회 회의실에서 육용원종계 4사 실무자 회의가 진행됐다. 지난 두 차례의 회의에서 감축에는 동의했으나, 업체간의 이해 문제로 감

축물량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으면서 금번 회의를 통해 마침내 수입수수를 확정, 합의를 도출해 냈다.

최초 동의했던 적정수수 120,000수(D-line 기준, 년) 중 업체별 수입배정물량은 삼화육종 45,000수, 한국원종 30,000수, 하림 30,000수, 마니커 15,000수이다. 한편, 쿼터물량 배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금번 합의에 참여한 업체 중 이를 위반하는 업체가 있을시, 위반일로부터 향후 양허관세 추천 물량을 배정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 가금관련 기관·단체 제 7회 친선등반행사



가금관련 기관·단체간의 현안문제를 교류하고, 상호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본회 주관으로 지난 5일 제7회 가금관련단체 친선등반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난 2003년 추계 친선체육대회 이후 지속 실시해 오므로써 가금산업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고, 정보공유와 상호 신뢰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가금산업 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날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

영팀 노수현 팀장, 김영만 사무관 및 농협중앙회, 한국계육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도종닭협회, 한국계란유통협회가 참여해 청계산 등반 후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 기자간담회

### 양계산업 발전 방안 논의



지난 9월 10일 축산관련언론사 출입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본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양계는 물론 축산업계가 어려운 가운데 당면 현안에 대한 논의와 이에 대한 자구책 마련과 양계인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본회에서는 오는 10월 6~7일 전국양계인대회를 개최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국의 양계농가 및 관련업계에서 참석한 가운데 AI·FTA 대비 양계산업 생존전략에 대한 심포지엄이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10월 22일에 개최될 '종계DB 구축사업 심포지엄'은 종계DB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중요성에 대해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 전했다. 앞으로 축산전문 신문사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로 양계산업이 발전할 수 있기를 당부했다.

## 채란분과위원회

### 의무자조금사업 추진단 꾸리기로



지난 4일 본회 회의실에서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천강균)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8월 29일에 있었던 전국채란인대회 결산 및 결과 보고가 있었다. 대회 주요 결의사항이었던 의무자조금을 2009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단을 구성키로 했고, 15인 이하로 하되 축산단체 임원 4인 이하와 소비자, 유통단체 각 1인이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08년도 임의자조금은 30,850천원(9월2일 현재)으로 납부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채란인들의 이해를 도모해 보다 적극적인 자조금 납부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밝혔다.

## 육계분과위원회

### 의무자조금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지난 5일 본회 회의실에서 육계분과위원회(위

원장 이홍재)가 개최됐다. 최근 계육협회 측은 육계의무자조금 시행에 대한 포기의사를 밝힘에 따라 본회와 농협이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을 전한바 있다.

이에 본회 육계분과위원회에서는 의무자조금 시행에 찬성했고, 농가에서 5원을 거출하고 내년 거출액은 대위원회를 통해 적정선을 협의키로 하면서 자체적으로 자조금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밝혔다. 또한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홍보자료 및 홍보활동을 통해 자조금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기로 했다. 한편, 집행부는 계열업체와의 유류대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9월 8일부터 본회에서 조사·발표하고 있는 육계가격에 대해 제반비용(kg당 80원)을 폐지하고 산지가격만 발표키로 결의했다.

### 종계부화분과위원회

#### 종계노계 출하 알선사업 추진



9월 10일 본회 회의실에서 종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최성갑)가 개최됐다. 주요 토의안건으로 계열업체에서의 육용실용병아리 판매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와 육용원종계 4사 실무자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또한 전국 양계인 대회 및 종계DB사업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건에 대해 분과별 분임토의를 개최키로 하고, 많

은 회원들의 독려가 필요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현재 협회에서 실행 중이며 만족도가 높은 산란계노계 출하 사업을 종계에도 도입, 종계노계 출하 알선사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단가는 산란계(350원)의 3.5배 수준으로 수당 1,200원(4kg기준)에서 ±100원 범위에서 시행키로 결의했다. 세부 사항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 《 지회 · 지부 소식 》

#### 정읍지부

#### 제 7회 양계인의 날 행사 개최



정읍지부(지부장 강서운)는 8월 28일 정읍학 생수련원에서 제 7회 정읍시 양계인의 날을 맞아 단합행사를 개최했다.

정읍시청 축산정책과 문갑식 과장, 축산진흥센터 고명권 소장 등 관련인사를 비롯해 70여명이 한 자리에 가졌다. 강서운 지부장은 “최근 고유가, 고사료시대를 맞아 경쟁력있는 양계산물을 만들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로 하며, 이 자리를 통해 결속력을 더욱 다지는 기회가 되어 지역 양계발전과 크게는 국내 양계산물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전했다.